

이 문서는 **cuted**의 strip 환경을 테스트한다. 텍스트는 신영복 교수의 글에서 가져왔고, 그림은 아덜님의 사진이다.

[1]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2리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1,400년전의 과거로부터 띄우는 이 엽서가 당신에게 어떻게 읽혀질 지 망설여집니다. 이곳 온달산성은 둘레가 683미터에 불과한 작은 산성입니다. 그러나 사면이 깎아지른 산봉우리를 테를 매우듯 두르고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투사같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풍겨오는 책성(책城)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

는 성이었습니다. 다만 하2리 마을 쪽으로 앞섰을 조심스레 열어 산성에 이르는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면 사모정(思慕亭)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전사한 온달장군의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자 평강공주가 달려와 눈물로 달래어 모셔간 자리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강공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는 사모정에서 나머지 산성까지의 길을 평강공주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2] 아래로는 남한강을 배수의 진으로 하고 멀리 소백산맥을 호시(虎視)하고 있는 온달산성은 유사시에 백성들을 입보(入保)시키는 성이 아니라 신라에 빼앗긴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망루나 천수각(天守閣)이 없어도 적병의 움직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眺望)이었습니다. 조령과 죽령 서쪽 땅을 되찾기 전에는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나는 반공(半空)을 휘달리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통일을 못마땅해 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내어 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일은 분명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광활한 요동 벌판의 상실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온달과 평강공주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산성을 찾은 나를 매우 쓸쓸하게 합니다.

[3]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에서 부(富)를 축적한 평민계층이 지배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변동기였다는 사료(史料)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온달>이란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천한 출신에 대한 지배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승락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史實)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의 바보온달을 선택한 평강공주

이 문서는 midfloat의 strip 환경을 테스트한다. 텍스트는 신영복 교수의 글에서 가져왔고, 그림은 아덜님의 사진이다.

[1]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2리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1,400년전의 과거로부터 띄우는 이 엽서가 당신에게 어떻게 읽혀질 지 망설여집니다. 이곳 온달산성은 둘레가 683미터에 불과한 작은 산성입니다. 그러나 사면이 깎아지른 산봉우리를 테를 매우듯 두르고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투사같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풍겨오는 책성(책城)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다만 하2리 마을 쪽으로 앞섰을 조심스레 열어 산성에 이르는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면 사모정(思慕亭)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전사한 온달장군의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자 평강공주가 달려와 눈물로 달래어 모셔간 자리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강공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는 사모정에서 나머지 산성까지의 길을 평강공주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에는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나는 반공(半空)을 휘달리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통일을 못마땅해 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내어 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일은 분명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광활한 요동 별판의 상실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온달과 평강공주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산성을 찾은 나를 매우 쓸쓸하게 합니다.

[3]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에서 부(富)를 축적한 평민계층이 지배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변동기였다는 사료(史料)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온달>이란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천한 출신에 대한 지배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



[2] 아래로는 남한강을 배수의 진으로 하고 멀리 소백산맥을 호시(虎視)하고 있는 온달산성은 유사시에 백성들을 입보(入保)시키는 성이 아니라 신라에 빼앗긴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망루나 천수각(天守閣)이 없어도 적병의 움직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眺望)이었습니다. 조령과 죽령 서쪽 땅을 되찾기 전

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승락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史實)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의 바보온달을 선택한 평강공주